

[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1> 리나의 행복일기

“난 행복한 엄마이자 소중한 일꾼”

▶ 온누리안=‘여성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코시안(Kosian)’ ‘다문화가정’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지지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하지만 일부 용어에 보이지 않는 차별적인 편견이 함축돼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전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온누리안’을 국제결혼 가정과 자녀를 뜻하는 별칭으로 선정했다. 온세상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 ‘온누리’와 사랑을 뜻하는 영어어미 ‘-an’을 합친 신조어다. 교육부도 이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리나씨가 지난해 12월27일 합평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주)서영의 작업대에서 제품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필리핀에선 남편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 한국에 와보니 사정이 달라 조금은 실망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좋은 가정이 있으니까요”

지난해 12월27일 합평군 나산면 응두리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주)서영의 작업장에서 만난 카초리리나지(33·이하 리나)씨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었다.

2001년 4월 결혼한 이후 남편 김현준(44)씨를 따라 필리핀 루손을 떠나온 리나 씨는 지난 5년여동안 절망과 갈등이 교차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가꾸어 가정에 대한 자부심이 역력했다.

이주 초기엔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 가족·이웃과 술한 갈등을 빚었지만 지금은 두 아들 재민(6)이와 상진(4)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며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또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12월부터는 합평군 나산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주)서영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매월 100만원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

리나 씨는 “시집와 처음 4년간은 농사를 짓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공장에 다니며 돈도 벌고 있어 살기가 훨씬 좋아졌다”며 “공장에서는 한국말로 배울 수 있고, 고향 필리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매일 매일 기쁘게 일하고 있다”고 즐거워했다.

5년간 절망·갈등도 많았지만 희망 버리지 않고 가정 가꾸어

공장 다니면서 날마다 웃음꽃 “이제는 당당한 한국인 됐어요”

서글름은 어쩔 수 없는 듯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이 오면 약값사라고 돈을 조금 부쳐드리곤 하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또 일이 힘들거나 몸이 아플때면 눈에 고항이 어른거려 참기가 어려워요”

부모님과 고향 이야기가 나오자, 서글서글하게 눈웃음을 짓던 리나 씨의 눈매에 곧바로 물방울이 맺혔다.

리나 씨는 “그래도 재민 아빠(남편)와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는데다, 공장에 오면 고국 사람들이 있어 힘이 된다”며 “애들도 유치원에 잘 다니고, 이웃들도 잘 대해주 지금은 절반 정도 한국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 김현준씨(44)도 “처음엔 적응을 잘 하지 걱정도 됐지만 시어머니에게 워낙 잘 하고 또 아이들도 잘 키워 주면서 부러워한다”며 “요즘엔 ‘필리핀 친구를 소개해 달라’며 중매를 요청하는 이웃들이 생길 정도”라고 웃었다. 현준 씨는 또 “결혼 초기엔 무엇보다도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었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말도 잘하고, 또 성격도 밝아 결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7남매를 거느리며 야채장사를 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잘사는 나라 한국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리나 씨의 소망은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온누리안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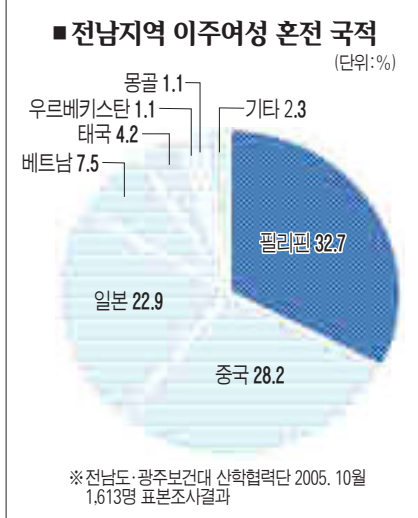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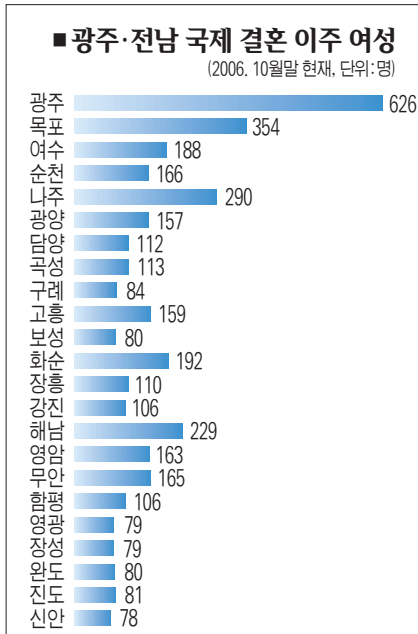
국제결혼을 통해 광주·전남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은 현재 4천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광주시는 626명, 전남도는 3천171명으로 자체 집계했다. 증가세도 폭발적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05년 말 2천33명에서 10개월새 1천138명(56%)이 늘어났다. 시·군·구별로는 목포가 354명으로 가장 많고, 나주 290명, 해남 229명, 광주 광산구 199명 순이며 광주 남구가 42명으로 가장 적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은 지난 2005년 말 이미 4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바탕으로 광주 455명, 전남 3천594명으로, 법무부는 광주 1천194명, 전남 2천979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보건복지부는 광주 1천301명, 전남 3천250명 등 모두 4천551명으로 전국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통계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외국인 주부가 귀화해 한국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할 경우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노출을 꺼리는데다 이들이 상당기간 행정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돼온 탓으로 풀이된다.

이주여성들의 혼전 국적은 전남의 경우 지난 2005년 10월 전남도-광주보건대 산학협력단 조사에서 필리핀이 32.7%, 중국 28.2%, 일본 22.9%, 베트남 7.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42.3%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86.8%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의 직업은 농·어민이 53.3%로 가장 많고 단순 노동자 17.5%, 공장 노동자 9.1%, 자영업 8.1% 등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 소득은 132만2천원으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2세인 자녀 수에 대해선 정부 어느 부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998년부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아이



광주·전남지역 4천명 넘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으로 그들의 문화 이해 노력 필요

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통계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파악한 초·중·고 재학생 숫자가 전부다.

광주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는 194명, 전남에는 1천95명 등 모두 1천289명이 재학중이다. 이는 지난 2005년 714명에 비해 무려 80.5%나 늘어난 것이다. 전체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91.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촌지역 총각들의 국제결혼 붐이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자녀가 취학연령에 도달하면서 향후 2~3년내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10년이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도인 전남은 전국 농촌지역만을 놓고 볼때 이주여성 주부와 자녀들이 가장 많다. 하지만 그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차별 대우, 경제적 빈곤 그리고 혼혈자녀에 대한 집단따돌림과 학습 부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반면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이들은 이미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적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주여성들에게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람이 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상호 재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산행안내 (산행정보, 코스, 예약처 등)

우성온수매트! 15년전통의 (주)우성온수매트에서 만든 믿을수 있는 제품. 우성온수매트의 특징점: 디지털방식/경제성/안전성/건강소재. 하루10시간 사용시 월 전기료 4,000원 절전형.

국민공인중개사. 전화 011-635-7939, 010-3114-6103. 부동산 매매, 임대, 전세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하이레이크 컨설팅. (주)하이레이크 컨설팅. 부동산, 교육,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